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7. SUMMER vol. 013

성우하이텍

40th Anniversary

나날이 짙어지는 하늘빛과
생명 하나하나 살뜰히 길러내는 태양의 숨결과
알알이 여물어가는 꿈….
여름은 또 한 번의 절정을 향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성우하이텍이 첫 발을 내디딘 40년 전 그날부터,
이 계절이면 열병처럼 설렘을 느낍니다.

가슴 뿌듯하게 차오르는 그 설렘이
열정이 되고, 희망이 되며, 꿈이 되어
오늘의 성우하이텍을 만들어온 것이겠지요.

다시 한 번 심장이 뜨거워지는 계절
성우하이텍 창립 40주년입니다.

CONTENTS

Cover Story
40년의 빛나는 주인공
하나 된 우리

04 **Issue & News**

08 **SUNGWOO 40th**
성우하이텍 40년 화보

12 **신의 한 수**
성우 40년의 길을 닦다

14 **Education**
진화된 교육을 통해 혁신을 꾀하다

16 **Workshop**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면 좋지 아니한가

18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성우하이텍 40년

22 **Mentoring**
2017 후견인 콘테스트

24 **SUNGWOO Family**
우리 가족은 모두
성우하이텍 Family Family~

28 **We are SUNGWOO HITECH**
하나 된 성우가족이 만들어가는
백년대계

30 **Global Network**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32 **Letter from SUNGWOO**
손으로 직접 써 전하는 마음 한 통

36 **Go Up**
노자산의 신선이 되어 다도해를 품다

38 **Quiz**
성우모의고사

40 **Unique SUNGWOO**
스트레스 날려주는 짜릿한 스트라이크!

42 **Column**
100년 기업, 아무나 하나?

46 **Better Relation**
소통

48 **For 40th Anniversary**
역사의 역사 속으로

52 **'성우사십년' 오행시**
성우40주년 축하메세지를 담아~

53 **나에게 성우하이텍은 ( )다**
성우인들 마음속의 '성우하이텍' 엿보기

54 **Tasty Road**
놓칠 수 없는 여름 별미!
최고의 밀면을 찾아서~

56 **Social Contribution**
성우하이텍과 함께
감성 충전할 준비, 되었나요?

57 **Board Game**
Let's Play the Game

59 **Now & Then**
성우인으로 첫발, 신입사원들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별을 쏘다
2017 SUMMER vol. 013

발행일 | 2017년 7월 28일 (통권 제13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김도형, 김은진,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 (Tel. 051-623-1906)

NEWS

이문용 사장,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장관상 수상

4월 1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열린 '제16회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식에서 이문용 사장이 사업화기술 부문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성우하이텍은 원가 5~10%, 투자비 약 50% 절감 효과가 있는 '이형단면 롤포밍 기술'로 범퍼빔을 생산하여 수상이 결정되었으며, 향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의 산업 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의 후원을 받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 받아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제를 달성한 기업과 학계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신입사원 등반대회 개최

5월 12일, 거제도 노자산에서 이문용 사장과 2017년 공채 신입사원들이 4시간에 걸친 등반을 완주했다. 가볍게 내린 봄비 탓에 단체로 빨간 우의(雨衣)를 입어 진풍경을 연출한 이번 등반대회에서 신입사원들은 "우리가 성우의 미래다!"라는 다부진 결의를, 성우하이텍은 "노자산의 너른 품처럼 신입사원들의 포부와 희망을 품어 줄 수 있는 회사가 되자!"라고 다짐을 하였다.
성우하이텍은 매년 대표이사와 신입사원이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등반대회는 궂은 날씨를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여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관련 기사: 36P

부산KBS1Radio <굿모닝 부산>, 지사공장 태양광발전소 소개

5월 29일 부산KBS1Radio 〈굿모닝 부산〉은 성우하이텍 지사공장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성우하이텍은 2014년 9월부터 자체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을 가동하여 연간 36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을 생산하고 있다. 지사공장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에너지 절감, 임대수익, 지붕유지관리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태양광 모듈 3,330개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량은 시간당 999.6KW에 달하여, 향후 5년 내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순수익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우하이텍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산성우하이텍, 진입도로 개선 후 아산시에 기부채납

아산성우하이텍은 사업장 진입도로 및 623지방도로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여 아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 임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과 원활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 5월부터 시작한 이번 개선 공사의 결과, 차량 통행도 원활해지고 사고 발생 건은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이번 기부채납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수행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이다.

NEWS

2017 펠리아배 부산MBC 전국볼링대회 3위 입상

6월 28일, 부산 대연킴스볼링장에서 열린 '2017 펠리아배 부산MBC 전국볼링대회' 3분기 직장 클럽전에서 성우하이텍이 3위에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민철 팀장(코일센타팀), 박대근 기사(코일가공반), 여상원 기장(조립5반)은 18개 팀이 겨룬 예선에서 2위로 결선에 올라 우승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3년 전 같은 대회에서 준우승 경험도 있어 기대가 컸으나 접전 끝에 석패하여 아쉽게 결승 문턱에서 물러섰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부단히 노력해준 선수들과 직장 동료를 위하여 끝까지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응원단의 하모니가 빛난 시간이었다. ▸▸ 관련 기사: 40P

아산성우하이텍, 제2회 아산맑은 풋살대회 출전

7월 2일 아산 선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아산맑은 풋살대회'에 아산성우하이텍 3개 팀(20대 팀, 30대 팀, 40대 팀)이 출전하였다. 아산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아산시 풋살연합 주관, 아산시, 아산시 관내농협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비롯하여 경기도, 전라도 등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이 실력을 겨루었다.
연령별로 팀을 나눠 진행된 경기에서 아산성우하이텍은 20대의 패기, 30대의 노련미, 40대의 견고함을 선보이며 매 경기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세대 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더욱 의미 있는 대회였다.

2017년 팀 문제해결 워크숍 진행

5월 첫 주부터 총 15차수에 걸쳐 '2017년 팀 문제해결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워크숍이 평소 묵혀두었던 팀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했다면, 한 단계 진화한 올해 워크숍은 버크만 진단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 교육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업무 방식의 조율을 통하여 화합하는 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까지 글로벌 품질확보동, 서울사무소, 수원R&D센터, 아산사업장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16P*

2017년 역량 향상 교육 진행

4월부터 시작한 역량 향상 교육이 경주 드림센터에서 1박 2일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직급별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던 예년 교육과 달리 올해 교육은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각 개인의 역량을 사전에 진단한 직원들은 5개(〈창의/혁신〉, 〈문제해결/추진력〉, 〈전문성/자기계발〉, 〈소통/배려〉, 〈팀워크/협업〉)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 개개인은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거나 강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총 18차수 과정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14P*

도전과 열정으로 다져온 40년 역사,
성우하이텍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도약합니다

지난 40년, 성우하이텍은
시대를 앞선 과감한 선택과 열정을 다한 도전,
창조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새롭게 열릴 성우하이텍의 40년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1977~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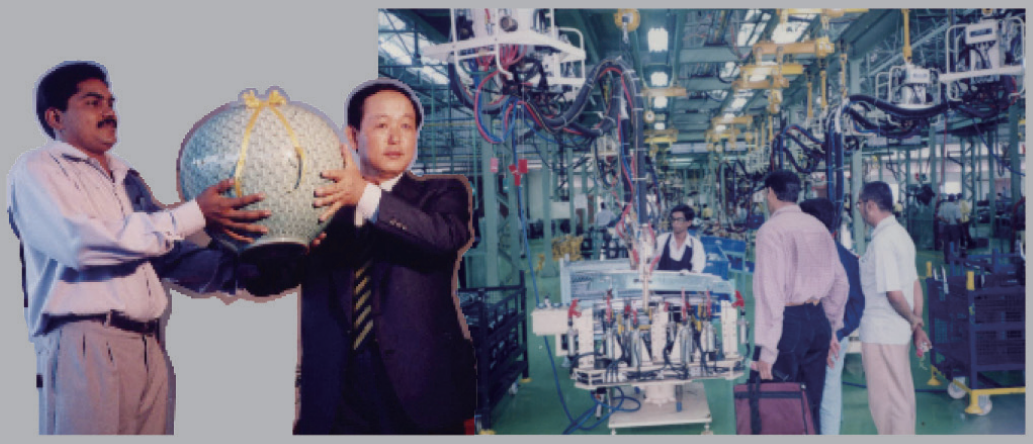
선택과 집중,
미래를 새로이 세우다

1977. 08 성우금속공업사 설립(부산 동구 좌천동)
1981 '성우금속공업'에서 '성우금속'으로 법인명 변경
1983 스텔라 몰딩 개발 및 납품
1989. 04 공장 신축 이전(부산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1990 ~ 1999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의 꿈을 그리다

1990. 01	㈜성우몰드 설립(금형전문제작회사)
1994. 10	기술연구소(現 R&D센터) 설립인가(과학기술부)
1995. 11	KOSDAQ 등록
1997. 07	인도합작법인 JSL 설립
1997. 10	㈜성우시앤시 설립(냉연코일가공센터)



대한민국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넘어
세계 일류 기업을 꿈꿉니다

2000 ~ 2009

글로벌 성우하이텍의 초석을 다지다

2000. 02	기술연구소(現 R&D센터) 독립건물 준공
2000. 04	상호 변경(성우금속 → 성우하이텍)
2001. 07	서창공장 준공
2002. 09	성우과기(무석) 유한공사(중국 우시)
2002. 10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설립(중국 베이징)
2005. 09	성우하이텍 s.r.o 설립(체코 오스트라바)
2006. 03	성우하이텍 슬로바키아 s.r.o 설립(슬로바키아 질리나)
2006. 08	성우하이텍 서창공장 사무동 증축
2006. 12	성우과기기차부건(염성)유한공사 설립(중국 옌청)
2007. 01	지사공장 준공
2007. 11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08. 06	성우과기(심양)유한공사 설립(중국 션양)
2008. 07	성우하이텍 RUS 설립(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2009. 02	SHI 설립(인도 첸나이)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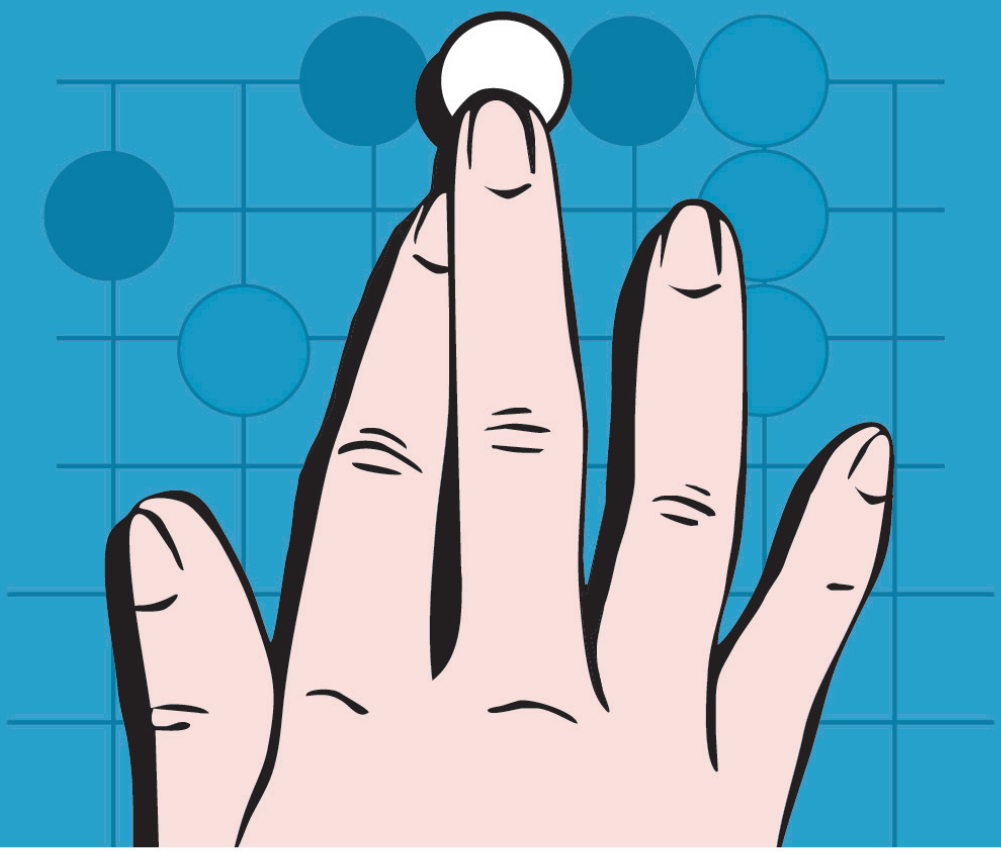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다

2010. 04	SSP 설립(인도 첸나이)
2010. 11	성우하이텍 코일센타 설립(부산 기장군 장안단지)
2011. 01	연태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 설립(중국 옌타이)
2011. 04	UZ SUNGWOO 설립(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2011. 12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대상 수상
2012. 06	독일 WMU 인수(독일 한 뮌덴)
2013. 11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
2013. 12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취득(산업통상자원부)
2014. 04	삼영 핫스탬핑 설립
2014. 05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대기업) 선정
2014. 06	독일 WMU B Gmbh 설립
2014. 10	성우하이텍 멕시코 설립(SUNGWOO HITECH MEXICO S.A de C.V)
2015. 12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6. 03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2016. 12	국내외 특허 666건 등록

성우 40년의 길을 닦다

신의 한 수

"그래! 결심했어!" 90년대 초반 예능프로그램의 유행어를 기억할는지.
이 프로그램은 삶이 곧 선택의 연속이고 그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한다.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판단과 과감한 실천을 통해 40년 역사를 만들어온 성우하이텍.
성우의 미래를 바꾸었다고 할 만한 역사 속 결정적인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



선택과 집중
자동차산업 진출

부산 좌천동에서 첫발을 내디딘 1977년.
성우금속공업사(성우하이텍의 전신)는 주로 주방기구, 농기구,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던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였다.

기존 생산품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그때, 성우는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을 만난다. 70년대를 지나오며 중화학공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 신 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당시는,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열린 때이기도 했다. 성우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시장에 과감히 발을 내디뎠다. '차체'라는 거시적인 아이템을 선택, 이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1981년 법인으로 전환한 성우금속은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뛰어들었다. 현대자동차 스텔라의 몰딩을 개발 · 납품한 것이 계기였다.
판단은 탁월했다. 성우금속은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고 1989년에는 1년 매출액에 육박하는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부산 기장의 정관으로 공장을 신축 · 이전했다.
1990년 금형 전문 제작회사인 '성우몰드' 설립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제품의 완성도와 기술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차체'라는 아이템을 선택한 이후 꾸준히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온 40년.
성우하이텍은 차체 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며, 코일의 공급부터 금형제작, 프레스 스탬핑, 완제품 조립과 도장(painting) 등 출고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시스템화하여 분야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범퍼의 경우 관련 특허 중 90%를 가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른 부품도 차체 부품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자동차 부품기업이라 인정받을 만하지 않은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다
해외 진출

성장의 박차를 가하던 1996년, 성우하이텍은 다시 한 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의 첸나이에 생산법인 설립을 계획하면서 해외공장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른바 '해외 동반 진출'의 기회, 회사 발전의 획기적 전기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인도에 진출한 자동차업체는 없었다. 성우하이텍은 물론이거니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성공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 인도 진출은 회사의 사활을 걸 만큼 위험부담이 큰 모험이었다.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한 발 더 나아갈 것인가. 최초의 선택에서처럼 성우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다.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력이라면 세계 시장의 높은 벽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원동력이었다. 이번에도 선택은 옳았다.

1998년 인도 공장을 본격 가동한 이후 19개월 만에 현지 전략형 모델인 상트로(국내명 아토스)가 인도 소형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인도 공장 설립으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성우하이텍은 잇따라 해외공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기업의 발판을 다졌다. 2002년 중국 베이징과 우시, 2005년 체코 오스트라바, 2006년 중국 옌청과 슬로바키아 질리나, 2008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2012년 독일 한 뮌덴까지. 현지공장을 통해 차체 부품 생산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것을 계기로 2006년 GM, 2008년 폭스바겐, 2009년 벤츠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그 진가를 확인했다. 국내시장의 수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해외 진출은 오늘의 글로벌 성우를 만든 '신의 한 수'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까. 성우하이텍은 늘 그러했듯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성공적 사업영역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2017 역량 향상 교육

진화된 교육을 통해 혁신을 꾀하다

장수하는 기업의 중요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변화'를 통한 '혁신'이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2017년. 성우하이텍은 직원 개인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번 역량 향상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이다

성우인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부족한 역량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참가에 앞서 성우인들 각자의 역량을 진단한 뒤 창의/혁신, 문제해결/추진력, 전문성/자기계발, 소통/배려, 팀워크/협업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개별 역량 수준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을 통해 성우인들은 실제 업무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접하고 교안, 교재, 보조교구 등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각 교육은 2일 16시간 과정으로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씽킹’으로 창의의 날개를 달자

8차수 교육이 진행된 경주 드림센터에는 창의/혁신 과정을 선택한 성우인들이 모여들었다.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여 직접 선택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기대감으로 가득한 얼굴들이다.

창의/혁신 과정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통해 비즈니스 분야의 혁신 창출 방법을 훈련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디자인 씽킹은 쉽게 말해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 즉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의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한 모델로,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 GE, P&G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디자인 씽킹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고객이다. 제품 자체에 주안점을 두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디자인 개념의 범위를 확장했다. 즉, 생각의 전환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디자인 씽킹은 물상 속의 의미를 발견하는 ‘관찰’, 지각과 행위의 일반원칙을 이끌어내는 ‘패턴’,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 ‘감정이입’,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통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우인들은 토의, 진단과 피드백, 사례 연구, 동영상 연구 등 다양한 기법에 따라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제 업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씽킹 스킬을 체득했다. 또한 라플레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고객을 설정하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았다.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던 이번 교육이 한 단계 진화하는 조직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인 역량 맞춤별 교육, 어땠나요?”

생산기술1팀
한기욱 과장

단순히 직책에 따른 계층별 교육이 아니라는 점, 본인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예시 상황을 제시해 업무와 연계성이 높았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후배 사원들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품질보증팀
박선미 사원

부족한 부분을 특화하여 교육을 진행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강의 내용 자체도 실제 업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무에 적용할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원가1팀
서승표 사원

신입사원 워크숍 후 처음으로 참가한 교육이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었습니다. 첫 시간에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문제해결 워크숍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면 좋지 아니한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성과가 오르지 않는 팀, 능률이 떨어지고 의욕을 잃은 팀,
소통의 부재로 팀워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올해 진행되는 팀 문제해결 워크숍은 이 질문에 주목했다.

화합하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치트키

나의 모습은 다양하다. 내가 보는 모습, 동료가 보는 모습, 친근한 사람과 커피타임을 가질 때의 모습, 일할 때의 내 모습이 모두 다르다. 사회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올해 팀 문제해결 워크숍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버크만 진단'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버크만 진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연구하고, 욕구가 충족되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관계적인 측면과 업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도구이다. 기업의 소통, 갈등관리, 팀 빌딩 등 기업 인재 개발의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IT지원팀 **유한종 사원**

어떤 조직이든 여러 특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진단을 통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새로웠습니다. 서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이 같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우하이텍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재지원1팀 **이한영 사원**

사전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서 팀원들과 비교해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팀원들 성향과 특성을 정리해서, 실제로 업무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같아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액티브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워크숍 참석 전 성우인들은

각자 버크만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질문 항목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직업은 무엇인지' 등 세 파트 300여 개로 세세하게 나눠졌다. 성우인들은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막대로 나타난 진단 결과 표찰을 패착하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팀 동료의 특성을 파악했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동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가졌다.

호응이 컸던 활동은

'나만의 욕구 명패 만들기.' 성우인들은 각자 '나에게 ~게 말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할지도 몰라요'라는 예시에 따라 바라는 업무 지시 스타일과 스트레스 상황을 작성하여 동료들 앞에서 발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종일관 웃으며 진행된 활동을 통해 성우인들은 늘 함께 일하는 팀 동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활동들은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팀원에게 가장 적합한(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을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으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대우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대우해 주라."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소통'과 화합을 부르는, 나아가 더욱 성장하는 성우하이텍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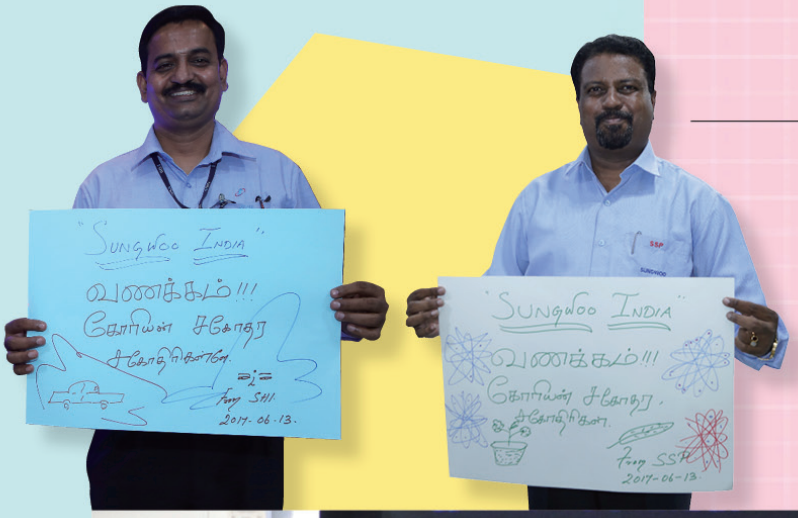
축하해요!

성우하이텍 40년

성우하이텍이 40돌을 맞았다는 소식에 다양한 국가의 성우인들이 나섰다!
색색의 카드 위에 손수 장식을 꾸미고 적어서 보내온 축하 인사! 지금부터 만나러 가 볼까~

tabriklamoq!

우즈베키스탄



बधाई!

인도

Поздравляе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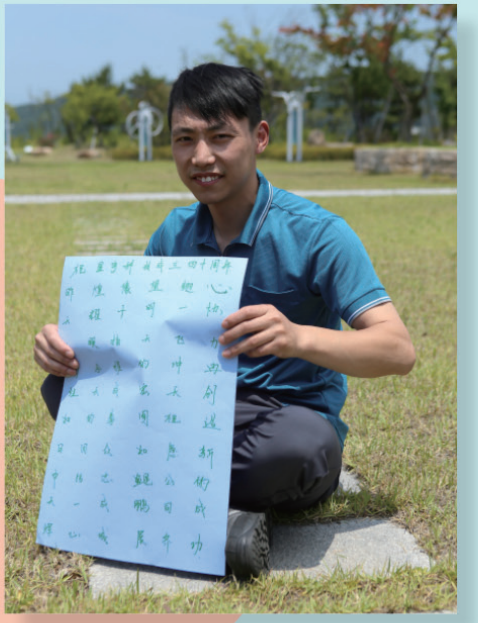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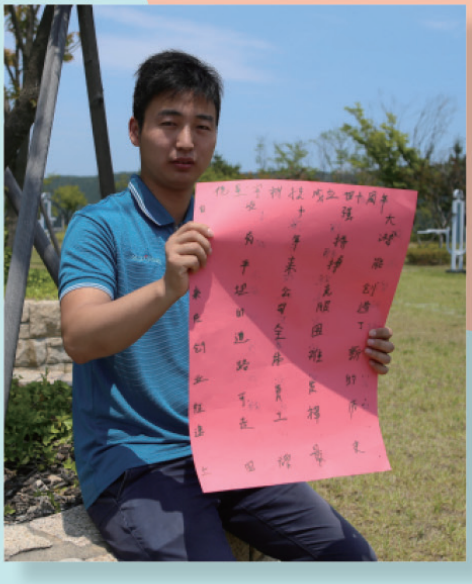
Sela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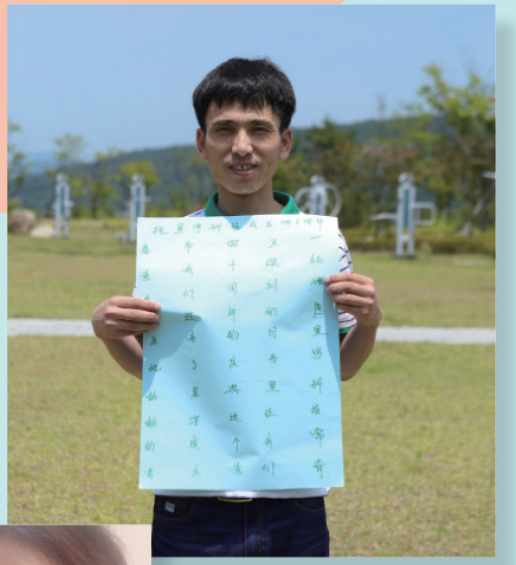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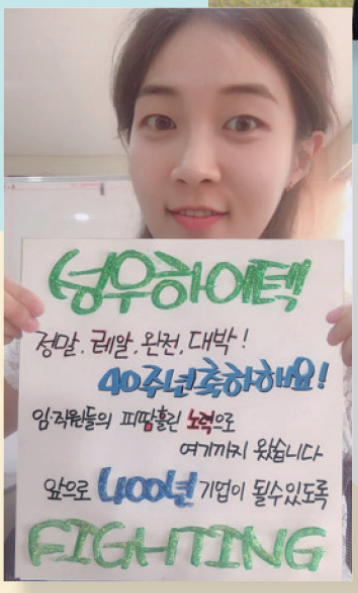
恭喜!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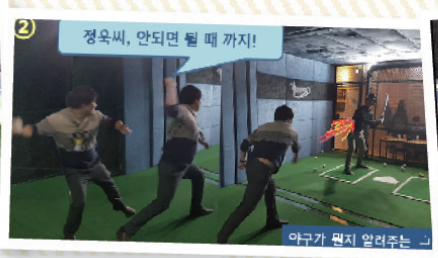


우리 회사 40주년 축하해요!

Herzlichen Glückwunsch!

독일

과장님... 잘 계시죠?
...얼굴보기 힘들구나...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현장실습도 잘라놓지 못한 두 사람
후견인
BBC NEWS
원가계산 월드컵 세계 1위
송영채 &이정빈 (성우하이텍 원가 1팀)
세계 원가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결과를 떠나 서로에 대해 알아 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높게 더 낮게 더 빠르게!!!!
1뭐시!! 지세 좋다!!
불방망이특훈 中
4번 타자
신지훈
김광우
패배
기획



2017 후견인 콘테스트

좁은 취업문을 통과한 신입사원들을 기다리는 것은 낯선 조직생활.
어리바리 신입사원이 성우 패밀리로 거듭나는 비밀병기, '성우 후견인 제도'가 올해도 실시되었다.
업무 노하우를 배우고, 함께 등산도 가고, 볼링도 치며 한 걸음 가까워진
성우하이텍 40주년둥이들과 후견인들. 그들의 다이내믹한 시간을 들여다보자.

우리 가족은 모두 성우하이텍 Family Family~♬♪

김복자 기장 가족

가족이 한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성우하이텍에는 어머니와 아들, 사위 모두가 성우하이텍 명찰을 걸고 일하는 가족이 있다.
조립5반의 김복자 기장과 가공2반 김윤현 기사(아들), 물류1반 정상현 기사(사위)의 이야기이다.
25년 경력의 베테랑 성우인 어머니와 4년차, 6년차의 햇병아리(?) 사위와 아들.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열정적인 기장님, 든든한 어머니

자그마한 체구의 김복자 기장은 여느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마음 좋고 품 넓은 어머니 모습 그대로, 사위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반짝였다. 입을 가리며 밝게 웃는 모습에서는 소녀 같은 순수함마저 엿보였다. 그런 김복자 기장이 생산라인 앞에 서서 일할 때만큼은 눈빛부터가 바뀐다. 25년간 현장을 누빈 내공이 느껴진다. 꼼꼼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조립5반의 공정은 이제 손바닥 보듯 훤하다.

"여자가 현장 일을 하는 건 좀 위험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계속 다닌 덕분에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보고, 윤현이와 정 서방까지 같이 일하게 됐으니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웃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자녀들도 자연히 성우하이텍에 호감을 느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늘 좋은 얘기만 해주셨어요. 입사 권유도 하셨고요. 사회생활 첫 경험은 어머니의 뜻과 달리 시작해서 여러 번 방황도 거쳤죠. 성우하이텍에 입사 도전을 결심했을 때, 복지나 급여 수준이 그동안 제가 다닌 회사보다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곳이라 신뢰가 생겼습니다."

물론 바람만으로 입사할 수는 없었을 터. 직원 채용이 특별히 많았던 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아들과 사위가 입사에 성공했다. 김복자 기장의 성실한 근무 태도가 면접관의 판단에 살짝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해 본다. 아들과 사위가 2011년, 2013년 잇따라 성우의 가족이 되면서 김복자 기장의 '성우 Family'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김 기장은 그때를 최고의 순간으로 꼽는다.

“ 성우하이텍에서 일할 수 있었던 덕분에
아들과 딸을 잘 키워낸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 아들과 사위까지
다니고 있으니 성우하이텍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가족 같아요. ”

- 김복자 기장 (조립5반)

“ 평생 일만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일을 워낙 좋아하시고,
일을 하시는 덕분에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정년 맞이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일하셨으면 해요.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 김윤현 기사 (가공2반)

“ 커다란 로봇 앞에서
공정 과정을 처리하시는 걸 볼 때면,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직업인으로서 평생 열심히
일해오신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

- 정상현 기사 (물류1반)

어머니

가족을 더 끈끈히 이어준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덕분에 가족 간에 정이 더 깊어졌다고 김복자 기장과 정상현, 김윤현 기사는 입을 모았다.

"장서 갈등은 남 얘기죠. 집사람보다 장모님을 더 자주 뵙는 날도 많아요. 회사에서 지나치다 뵈면 엄청 반겨주시고, 동료들과 음료수라도 사 먹으라며 주머니에 지폐도 넣어주세요.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삽니다. 처남보다 더 잘 챙겨주셔서 가끔은 누가 아들이고 누가 사위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에 입사한 후 마음의 거리가 좁아진 것 같다는 정상현 기사의 말이 빈 소리는 아닌 듯, 인터뷰 내내 김 기장을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다. 출퇴근 버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만나다 보니 자연히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회사 업무, 행사 등 공감할 주제가 무궁무진하다 보니 대화거리는 늘 넘쳤다. 업무에 대한 조언, 사회생활 꿀팁을 장모로부터 듣는 사위가 얼마나 될까? 정 기사는 세상에 몇 안 되는 특별한 사위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휴가 기간이 동일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의 기회도 많아졌는데, 지난해에는 놀이공원에서 스릴 넘치는 추억을 쌓았다. 김복자 기장 퇴직 후 해외여행도 계획 중이다. 목적지는 베트남으로 정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한 해 한 해 추가할 예정이다.

"다녀오신 어머니 지인이 적극 추천하셔서 가족이 다 같이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수고한 노고에 비하면 보잘 것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의미의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들

사위

* 장소협찬 | **카페 LULU**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 68 (모전리) t. 051-728-5822

우리 가족의 힘
40년 넘어 승승장구하길

가족 중 세 명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복자 기장은 마음 한편에 걱정을 갖고 있다. 각자 맡은 역할은 잘 해낼지,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지, 구설수에 오르지는 않을지…. 김 기장의 걱정을 알아서인지 정상현, 김윤현 기사 모두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아직 큰 굴곡 없이 직장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김 기장의 마음도 예전에 비해 한결 편안해졌다.
김복자 기장에게 성우하이텍은 어떤 의미일까. 25년의 삶이 오롯이 담긴 직장을 몇 마디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터. 김 기장은 특유의 소녀 같은 손짓으로 손을 모으고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간결한 답이 돌아왔다.

"'가족을 지탱해준 힘'이죠."

과거에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력이었고, 지금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끈이 되어 준 것이 성우하이텍이라고 김 기장은 이어서 설명했다. 혈연으로 맺은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들 역시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입으로 잔뜩 긴장했던 마음을 녹여줬던 첫 야유회, 납품 기한을 맞추느라 의기투합했던 나날들,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휴식 시간의 풍경 등 돌아보면 보람 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회장님과 성우가족 모두에게 감사해요. 함께 힘을 합쳐 지금까지 회사를 잘 이끌어온 덕분에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장님과 성우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우리 세 사람도 성우하이텍과 인연이 다하는 그날까지 회사와 주변 동료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걸고 발을 맞추다

하나 된 성우가족이 만들어가는 백년대계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였던 성우금속공업사가 1981년 성우금속으로 법인명을 전환하고 자동차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지난 1983년. 이후 꾸준히 규모를 키워 나가 1989년에는 부산 기장의 정관에 공장을 신축했다. 공장 신축 후 본격적인 자체기술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 성우하이텍은 현재 전국 각지에 공장과 지사를 운영하며 국내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인정받는다. 성우 성장의 기틀이 된 국내 사업장들을 소개한다.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1 MGL
블루핀타워 5층

서울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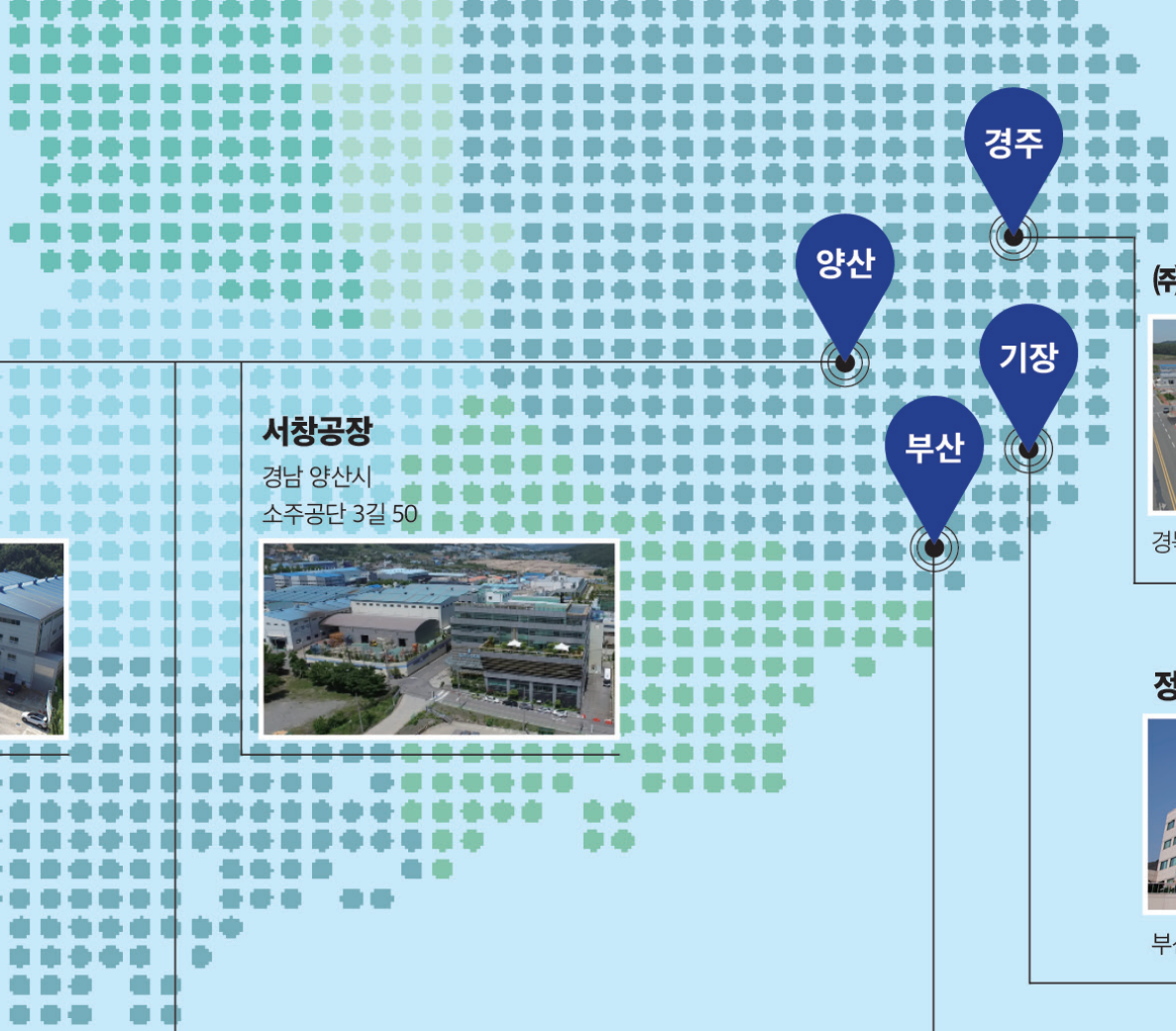
㈜아산성우하이텍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591

아산

수원연구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산업로 205 2층



㈜삼영핫스탬핑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고단길 173-80

금형공장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 7길 30

서창공장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 3길 50

정관공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9

R&D센터(서창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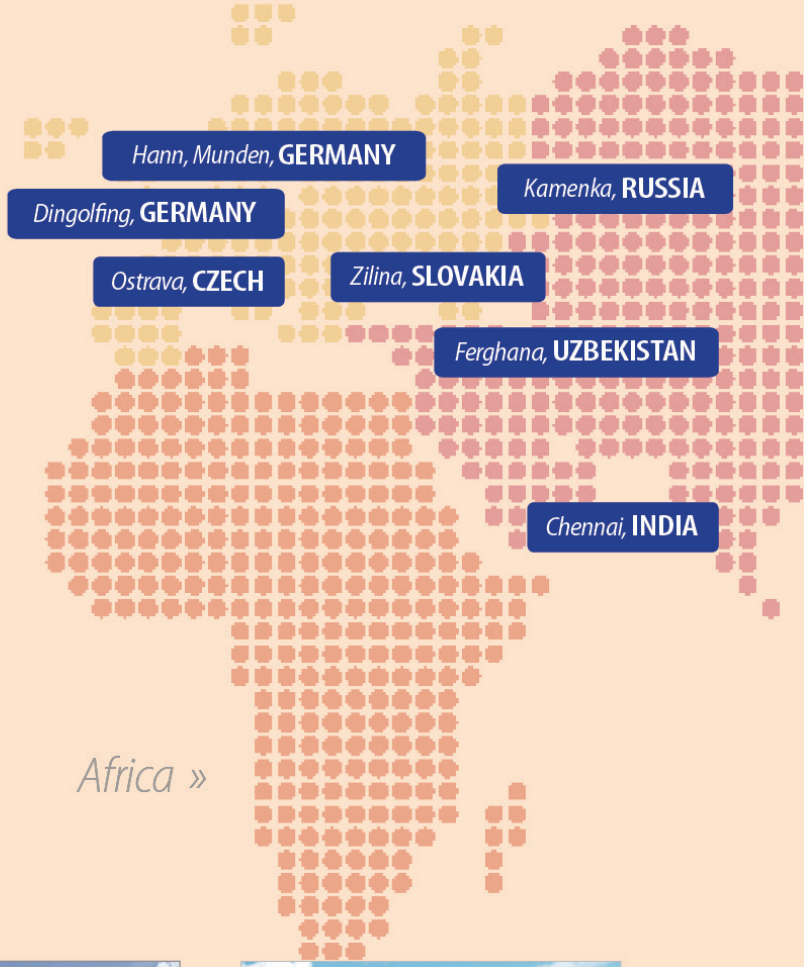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 6길 18-2

코일센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로 151

지사공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성우하이텍, 세계로 뻗어나가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1997년, 성우하이텍은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력을 발판 삼아 해외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인도 첸나이에 첫 해외법인 JSL을 설립한 후 꼭 20년이 흐른 지금.
인도에 이어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독일 등지에 차례로 해외 법인을 설립한 성우하이텍은 현재 9개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성장했다.

인도SHI | 1997년 설립

무석법인 | 2002년 설립

북경법인 | 2002년 설립

체코법인 | 2005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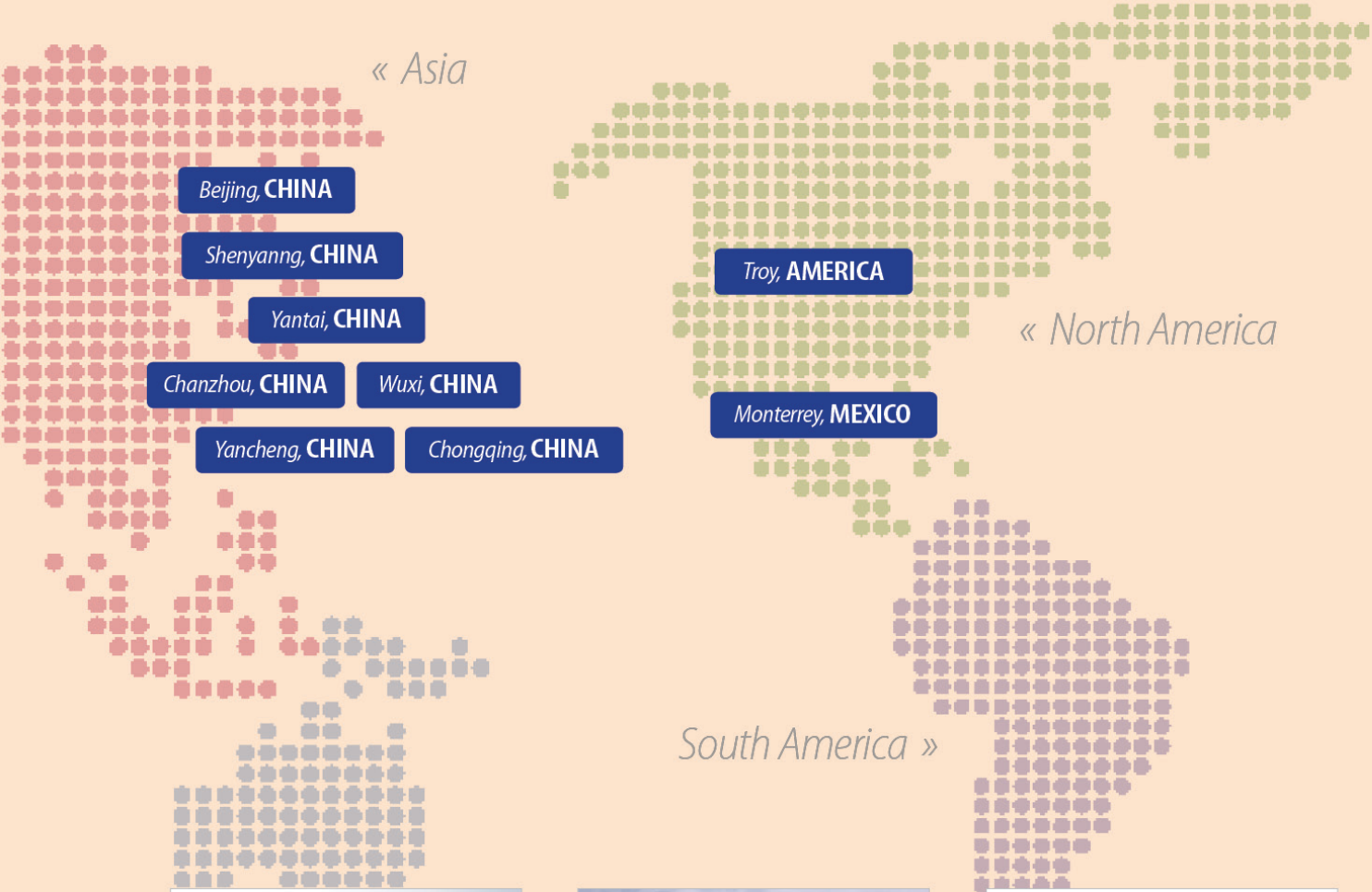
슬로바키아법인 | 2006년 설립

염성법인 | 2006년 설립

심양법인 | 2008년 설립

러시아법인 | 2008년 설립

인도SSP | 2010년 설립



연태법인 | 2011년 설립

우즈베키스탄법인 | 2011년 설립

독일WMU | 2012년 설립

독일WMU B | 2014년 설립

멕시코법인 | 2014년 설립

미국사무소 | 2014년 설립

창주법인 | 2015년 설립

충칭법인 | 2015년 설립

손으로 직접 써 전하는 마음 한 통

성우하이텍의 앞선 기술력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게 되자, 이를 배우기 위해 성우하이텍을 찾는 외국인 사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성우하이텍에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각국의 직원들이 '성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2015년 비전문취업자 자격으로 성우가족이 된 인도네시아 출신 5인방도 그런 외국인 사원들. 성우하이텍 40주년, 한국생활 3년차에 접어든 이 유쾌한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가족들에게 쓴 편지를 전해왔다.

데니 사푸트라
성우하이텍 금형공장 사상반

Kepada : yth Bapak dan ibuku
di Rumah

Asalamnualaikum WR WB
Apa kabar keluargaku dirumah ?? semoga baik-baik saja dan sehat selalu amiin. Sudah hampir 2 tahun aku meninggalkan rumah semoga tidak banyak perubahan yang terjadi selama aku jauh dari kalian. Alhamdulillah saya disini sehat dan masih diberi kelancaran bekerja, selama aku disini banyak hal yang aku dapakan selain tentang kemandirian disini aku belajar tentang bagaimana menjalani persahabatan saling menghargai dan saling melengkapi satu dengan yang lainya dan masih banyak lagi lainya yang belum tentu aku dapatkan kalau aku dirumah saja.
Doakan saja anakmu ini bisa sukses diperantauan tidak lupa dengan niat dan tujuanku datang kesini, Entah sampai kapan saya berada disini yang jelas aku rindu aku kangen kalian semua ingin rasanya berkumpul kembali seperti dulu lagi apa lagi saat ramadhan seperti ini rasa kangen dan Rindu ingin pulang semakin terasa sekali. Sebelum saya akhiri saya ingin mengucapkan MINAL AIDZIN WALFAIZIN mohon maap lahir batin untuk kalian semua sehat selalu untuk ayah ibu nenek dan buat adikku semangat belajar agar sewatu saat bisa membanggakan ke 2 orang tua. sekian terima kasih dari saya anakmu

DENI Saputra

To: 여자친구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지만 회사 사보를 통해서 편지를 쓰려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편지를 읽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에게는 한국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선배들도 친절하고, 특히 한국음식을 좋아해서 얘길 많이 했습니다. 김밥, 어묵, 떡볶이 같은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여자친구에게도 사주고 싶어요.

From: 데니

페리 산토소

성우하이텍 금형공장 사상반

Kepada
Yth. Bapak. Ibu
Di Gebayan. Surabaya. Salam. Magelang

Assalamu'alaikum Wr. Wb.

Apa kabar Bapak. Ibuk, Priyun kabare? muji sehat selalu muji kansah pinaringan welas asih saking Allah SWT. Amin. Aku nang kene sehat mak. Alhamdulilah, Rag usah mikir sek ora² Mak kenang Anakmu Aku iso jogo awakku dewe. Nyuwun dangane mawon muji kansah sehat terus, bagas waras slamet lan lancar Rejekinipun.

Mak/pak. Aku nang kene ketemu kancang² Magelang karo de konco akeh mak, sik apik yo di kancani mak sek nakjak menggok yo gus tak iyoni ae, tapi ra tak gagas. Tapi sek do mbunbung aku yo akeh kok mak becone sukses ora balik kene meneh. Aku nyuwun doane mak becone nang kene nang perantauan sukses. Sakjane Aku kangen mak pengen tilik nyomah, tapi wektune sik durung pas mak, karo duwung Pue sangune, nang kene Aku yo Nabung sitik² getuku tiket sok nak Mulih mak.
Alhamdulilah nang kene iso ngrasake sek jenenge Aku'n seko wong tuo, nak Nadang jupuke, masak di masake, nang kene aku iso mandiri solake

To: 어머니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을 잘 보냈는지 어머니께 안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어머니께서 늘 기도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동료들과 등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짬뽕, 갈비탕, 김치 같은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내년에 돌아갈 때까지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From: 페리

베니 사푸트로

성우하이텍 금형공장 사상반

Kepada : SIMBAH WEDOK

iki ora mupeng kon nulis opo, angger nulis wong saben dino yo telfon kangkonan e pabrik iki, udu aku dewe. ono fotoku ojo dibuang nlo yooo ....!!!

Bingung rep nulis opo maneh iki nik ning sawah ojo nutih sore-sore. ojok terlalu capek nubah keselahane di jogo.
Nteni nutih ku tak senengno. ojo kluntir, pokok ning omah di gawe. Slow, pangan opo di tukeri.
ora usah emang dadi wong ki nuet ora digawo mati.
Mumpung isih ning nganyo di gawe seneng, urip pisan ojo digawe susah.... !!!!

From : cucu mu.
"SOUTH KOREA"

To: 할머니

얼마 전 할머니의 60번째 생신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절 길러주셨는데 중요한 60번째 생신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같이 입사한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고, 회사 선배들도 잘해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지내셔서, 내년 생신 때는 꼭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From: 베니

안도코
성우하이텍 금형공장 사상반

DEAR
MY FAMILY

안도코

DOA UNTUK IBUNDA DAN AYAH

Semoga bapak ibu selalu dalam lindungan ALLAH SWT, dan
k lupa untuk adiku yang tersayang semoga sekolahnya lancar
rar. Ibak sekarang anakmu hampir dewasa bisa mencari kehidupan
sendiri. ayah betapa besar pengorbanan engkau kepada anak-anakmu
tiap tetesan keringat yg mengalir dari dirimu, dengan lelah engkau
ncari nafkah untuk keluargamu. siang dan malam tak peduli
an panas, engkau dengan tulus ikhlas mencari nafkah untuk
luargamu, dirini anakmu mengerti tentang arti kehidupan yang
inggginya. dari orang-orang yang selalu mendukungku mendoakan
gakulian kerja keras, tekun dan tak lupa ucapan doa yang
selalu kalian panjatkan siang dan malam tak peduli mengirikan
imu sendiri, terima kasih keluarga tercinta.

UNTUK CALON TERCINTA

Mungkin tak banyak laki-laki yang mengerti tentang arti
iaan, mulai dari hal-hal kecil akan sepele untuk membuatmu
a tertawa maupun bercanda namun setiap ucapan untukmu ini
lah untuk membuatmu tersenyum namun kamu harus tahu
selalu laki-lakimu membuatmu tersenyum, namun sekarang
uatmu jengkel, nangis namun ini sebuah ikatan batin yang
t dan untuk membuat belajar dewasa dan kuat menjaga sejak
, harus lalui mata-mata dimana orang yang membuatmu
gin tak selamanya membuatmu tersenyum selalu dan semoga
, tetap sabar dalam menunggu laki-lakimu pulang untuk ini
peka dari ini tetap contoh doyan apa yang kamu milih

FROM ANDOKO

To: 부모님

처음에는 적응을 잘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반원들과 선배들이 친절히 잘 도와주어서 일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한국말도 늘었고요. 간단하게지만 한국 직원들과 대화도 될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느낀 정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회식 때 저희를 위해서 꼭 소고기를 주문해주시는 것 늘 감사해요.

From: 안도코

프레디 구나완
성우하이텍 금형공장 사상반

ASALAMU ALAIKUM

Untuk keluarga dirumah, salam kangen,
buat mamak terima kasih atas doamu sampai saat ini
anakmu "aku" selalu dalam lindungan Allah.
buat bapak terimakasih atas semua bimbingan, saran
terbagi doa yg tak henti²nya.
dan buat mbah mun ...,
Mbah terimakasih banyak mbah ,,,
gag abis kata" nggo simbah, putumu sampek nengke
yo amergo simbah, doa" simbah, perjuangane
simbah. matur suwon sanget mbah ☺ ☺

buat adik" ku semoga apa sang dipingini /dicita"
ke terkabul.
ojo bantah, ojo ngejel, Jogo kabeh ya
simbah kon sregep jum'atan
smoga sehat kabeh, Lancar kabeh urusane
Aku pasti pulang mbah, pak mak
Salam kangen

Wassalamualaikum ...

To: 부모님과 동생들

저는 요즘 회사 근처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생활 외에 한국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재미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같이 온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바다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동생들이 아직 어린데, 돌아갈 때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From: 프레디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하는 노자산 등반대회

노자산의 신선이 되어 다도해를 품다

지난 5월 12일, 2017년 신입사원들은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거제도의 노자산(老子山) 등반에 나섰다.
노자산은 불로초가 자라고 팔색조가 산다는 신선의 산이다. 무엇보다 거제의 다도해를 내려다보는 비경이 가슴을 틔워준다.
정상에서 다도해를 향해 서면 기쁨은 감격으로 바뀌고 신선의 마음을 가진다.

패기의 신입사원, 신선이라 불리는 산을 오르다!

오전 9시 30분 본사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노자산의 자연휴양림에 도착했다. 오전 11시 50분경 등산로를 따라 등반이 시작되었다.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틀리기를 바랐지만 얄궂게도 시작할 즈음 비가 보슬보슬 내린다. 하지만 이문용 사장과 함께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이깟 비가 대수랴.
준비된 우의를 나눠 입고 혹시 모를 부상 방지를 위해 준비운동 하는 모습이 하나같이 적극적이다.
코스가 비교적 무난하지만 비로 인해 흙길 자갈길을 조심히 올라야 했다. 선두권에서 일행을 이끄는 이문용 사장은 거침없이 산을 오르다가도 뒤쪽 일행과의 간격이 벌어질라 치면 잠시 호흡을 조율하며 함께 등반을 이어갔다.
비가 온 덕인지 산행길에 우리 회사 등반팀 외에는 등산객을 보기 어렵다.
난코스가 나오면 서로 잡아주고 끌어가며 밝고 씩씩하게 산행을 이어간다.
노자산에 산다는 그 유명한 팔색조는 보이지 않는다. 숨어서 우리를 보고 있었을까?

출발한 지 두 시간! 드디어 정상이다!

기쁨은 곧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어진다. 정상 바위에서 율포만을 향해 내려다보는 다도해의 풍광 덕분이다. 처음에는 구름과 안개로 풍경이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이 커튼을 열어주듯 구름을 살짝 걷어주자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다도해의 경관에 입이 벌어진다. 신입사원들의 눈빛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문용 사장은 이번 등반대회의 장소로 노자산이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신입사원들과 노자산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다도해의 이 절경을 꼭 함께하고 싶었노라고!

많은 인원이 질서 있게 움직여 기념촬영까지 마치자 즉석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어색해 하던 사원들은 이내 끼를 분출하기 시작한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보통이 아니다. 신입의 패기와 당돌함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다. 성우의 미래로서 기대를 갖게 한다. 준비해 온 김밥과 맥주 한 캔은 흥겨움을 더해준다. 내리는 비로 온몸이 젖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하산하였다.

다도해를 보고 다도(多道)를 말하다

등반을 마치며 회식자리가 이어졌다.

이주현 사원(경영기획팀)은 입사 이래 가장 뜻깊은 행사가 이번 등반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등산로 입구에서 사장님께서 '노자산은 산삼이 나오는 명산'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신기해 보이는 풀과 꽃을 볼 때면 동기들과 '산삼이다. 심봤다!'를 외치며 까르르대며 어찌나 웃었던지."

신입사원들은 이문용 사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이 인상 깊었나 보다. 성우는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것, 신선한 발상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다양한 생각과 시도를 강조했다.

"오늘 산을 오르내리며 넘어진 사원들도 있죠? 어때요? 넘어져 보니 별 것 아니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패해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자산 정상에서 다 같이 바라봤던 다도해의 탁 트인 풍광처럼, 신입사원들도 성우하이텍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게 한 등반이었다.

[실전편]

성우모의고사

Quiz! 성우하이텍을 알고싶다면 풀어라!

하루아침에 성우하이텍을 아는 것은 어렵다. 무엇이든 한걸음씩 시작하라고, 다음의 문제를 통해 성우하이텍을 꿰뚫어 보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어보자.

Quiz 1

"( )을 통해 ( )를 모으는 성우하이텍을 만들자!"

( )에 어울리는 낱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밥통, 특혜 ② 소통, 지혜
③ 깡통, 식혜 ④ 물통, 은혜

Hint 사보 Vol.011 p4~5 「2017년 시무식」 살펴보기

Quiz 2

2017년 3월 2일, 성우하이텍은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다음 중 직장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소년탐정 김전일」의 마유미
② 「명탐정 코난」의 뭉치
③ 「짱구는 못말려」의 훈이
④ 「짱구는 못말려」의 짱아(짱구 동생)

Quiz 3

다음 중 8월 15일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②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③ 2100년 8월 15일, 어벤져스 VS. 저스티스리그 전쟁 종료
④ 1977년 8월 15일, 성우금속공업사(現성우하이텍) 설립

Quiz 4

성우하이텍은 2011년부터 대표이사와 신입사원이 함께 산행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대표이사와 신입사원이 함께 등반하지 않은 산은?

① 가지산
② 소백산
③ 킬리만자로산
④ 노자산

Hint 사보 Vol.001 p21~23 / Vol.009 p14~15 / Vol. 013 p36~37

Quiz 5

다음 중 성우하이텍이 보유한 기술이 아닌 것은?

① Roll Forming 기술
평면상태의 철판을 원하는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ROLLER 쌍들로 배열된 PASS를 따라 소재가 움직이면서 일련의 형상을 성형하는 방법

② Tailor Welded Blank(TWB) 기술
2개 혹은 그 이상의 두께, 재질이 상이한 강판을 재단하여 접합 후 성형함으로써 소재특성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차체 제조에 이용하는 기술

③ Hydro Forming 기술
튜브 내에 유체를 채운 후 밀봉하고 내압을 높여 확관함으로써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정형제조기술

④ 소맥 제조 기술
투명한 유리잔에 소주와 맥주를 함께 섞은 폭탄주, 칵테일의 일종을 만드는 기술. 소주와 맥주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핵심

Hint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R&D CENTER] - [보유기술]
정답이 없을 수도 있음. 숨겨진 MASTER가 성우하이텍에 있다는 소문이…

Quiz 6

성우하이텍 『별을 쏘다』에서는 전국의 이색적인 카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별을 쏘다』에서 소개한 카페가 아닌 것은?

① 강릉-보헤미안

② 서울-커피프린스 1호점

③ 양산-구름에 반하다

④ 군산-미즈커피

Hint 사보 Vol.002 p4~9/ Vol.006 p30~35/ Vol.011 p34~37

Quiz 7

성우하이텍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중 성우하이텍이 진행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아닌 것은?

① 해피스쿨 목욕봉사

②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치 나눔

③ 알래스카 북극곰 구조

④ 성우공동모금

Hint 사보 Vol.003 p20~25/ Vol.011 p54~55/ Vol.012 p34~35

Quiz 8

성우하이텍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 체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중 성우하이텍 스트레칭 체조에 없는 동작은?

① <올드보이> 유지태의 메뚜기 자세
② 옆 사람의 어깨 주무르기, 두드리기
③ '하하하' 웃으며 손볼, 손뼉치기
④ 깍지 끼고 양팔 올리기

Hint 사보 Vol. 009 p48~49(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Quiz 9

1983년, 주로 주방기구, 농기구,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던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였던 성우금속이 처음으로 몰딩을 개발 및 납품한 자동차의 모델명은?

① 니로 ② 스팅어
③ 코나 ④ 스텔라

Hint 사보 Vol. 001 p24~29
「성우하이텍의 어제와 오늘, 그 옹골진 역사 속으로~」

Quiz 10

성우하이텍의 심벌은 기업명인 성우하이텍(SUNGWOO HITECH)의 첫글자 'S'를 원형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조형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성우하이텍을 중심으로(A)과 (B) 그리고 (C) 지향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심벌의 청색은 (A)과 (B)을 나타내고 적색은 (C)로의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다음 중 (A), (B), (C)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꿈, 희망, 미래 ② 뚜비, 나나, 뽀
③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④ 땅, 불, 바람

Hint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기업현황] → [CI소개]

정답 Q1.② Q2.④ Q3.③ Q4.③ Q5.④ Q6.② Q7.③ Q8.① Q9.④ Q10.①

성우하이텍 볼링팀

스트레스 날려주는 짜릿한 스트라이크!

"성우하이텍 파이팅~!"

6월 28일 오후, 부산 대연킴스볼링장이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찼다.
'2017 펠리아배 전국볼링대회' 3분기 직장클럽전 결선 경기가 한창인 현장.
플래카드를 흔들며 열정적인 응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반가운 이름 '성우하이텍'이 단연 눈에 띈다.

3년 만의 우승 도전

김민철 팀장(코일센타팀)과 박대근 기사(코일가공반), 여상원 기장(조립5반)은 18개 팀이 겨룬 예선을 2위로 통과해 우승 기대감이 컸다. 상대는 결선 첫 경기 승자인 태영버스 팀. 롯데마트 팀을 가볍게 제압하고서 사기가 잔뜩 올라 있었다. 2014년 직장클럽전 준우승에 빛나는 성우하이텍 팀도 심기일전했다. 초반 경기 양상은 막상막하. 그때, 팽팽한 경기의 균형을 깨트리는 여상원 기장의 첫 스트라이크가 터졌다! 깔끔한 자세로 볼을 던진 여상원 기장은 통쾌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핀을 확인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열기를 고조시키는 빠른 템포의 음악이 스트라이크 성공을 알렸고, 응원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상원 기장의 이름을 목청껏 외쳤다. 자신감을 얻은 성우하이텍 팀은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가며 승리를 예감했다. 하지만 태영버스 팀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점수 차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스페어 처리와 스트라이크로 맞불을 놓으며 성우하이텍 팀을 따라붙은 태영버스 팀은 추가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여 1점 차 승리를 거머쥐었다. 3개월 전부터 대회 준비를 해온 성우하이텍 팀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 볼링 자체를 즐기기에, 팀원들은 이내 아쉬움을 내려놓고 뜨거운 응원전을 펼친 응원단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볼링 핀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통쾌한 소리.
그 중독성 강한 소리에 매료당한
이들의 볼링 사랑은 쭉 계속될 것이다.

건강과 즐거움을 한 번에, 팔방미인 볼링

김민철 팀장과 박대근 기사, 여상원 기장은 누구 할 것 없이 볼링 마니아들이다. 업무 후 볼링센터에 모여 게임을 하고 나면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는 어느새 잊게 된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라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시작할 수 있죠. 일단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철 팀장의 말처럼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단결력이 길러진다. 이런 점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여상원 기장은 볼링의 또 다른 매력에 대해 말을 보태었다.

"짧은 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집중력과 자기 통제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야 상대와 겨룰 때 이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볼링은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이자 전신운동이기도 하다. 허벅지 안쪽과 허리, 팔 근육 단련에 특히 도움이 되어, 적정 운동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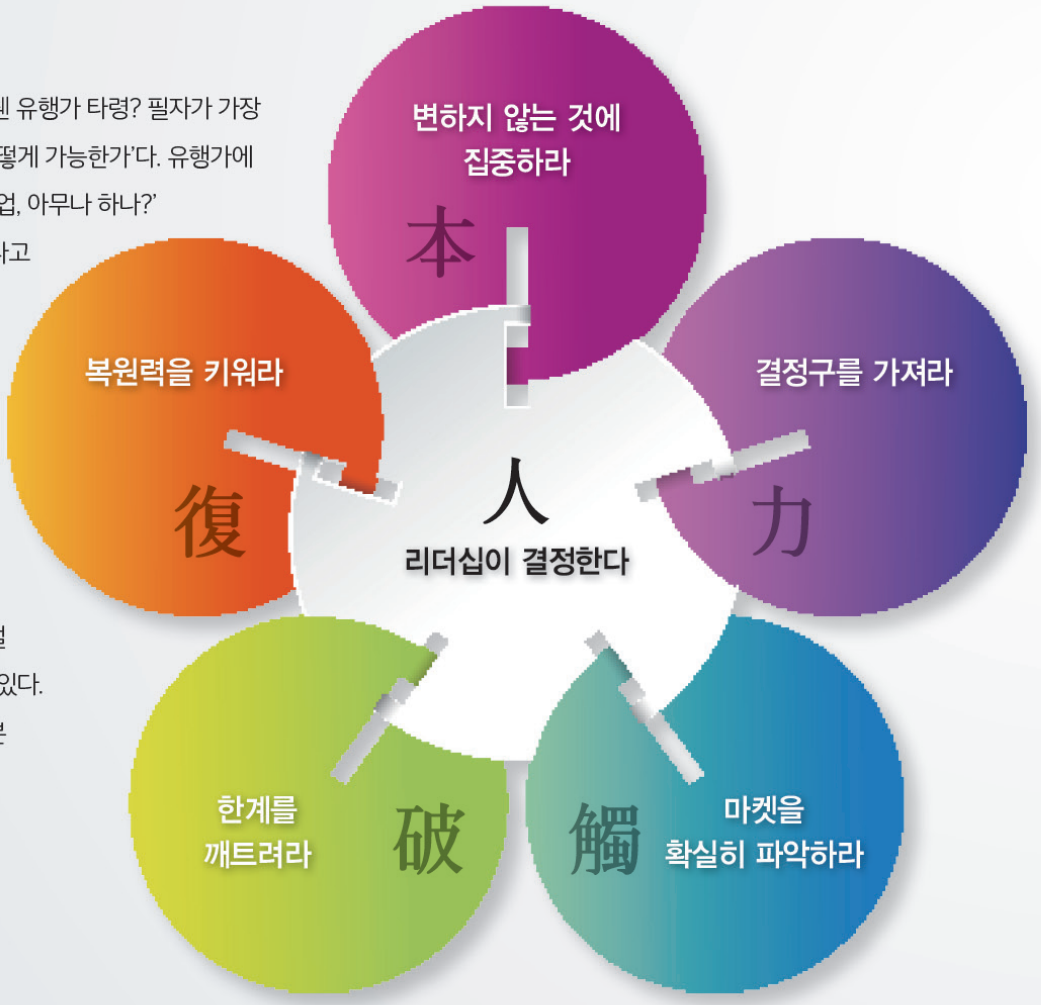
"스트라이크를 칠 때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그 긴장감과 쾌감을 꼭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김민철 팀장, 박대근 기사, 여상원 기장에게 볼링 핀이 쓰러지는 통쾌한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도 없으리라. 그 소리에 매료당한 이들의 볼링 사랑은 쭉 계속될 것이다.

100년 기업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뜬금없이 웬 유행가 타령?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100년 기업 어떻게 가능한가'다. 유행가에 빗대면 이렇게 들린다. '100년 기업, 아무나 하나?' 기업은 유기체요 생물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어디선가 소멸한다. 헌데 소멸되지 않고 지속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00년 이상 지속된다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걸 안다면 100년 기업, 아무나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답부터 말하면 100년 지속 글로벌 초우량기업들에겐 '핵심 DNA'가 있다. 압축하면, 핵심 비결 5가지와 기본 1가지! 하나씩 살펴보자.



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코닝'은 유리 제조 기술에서 근본을 찾았고, '레고'는 놀이의 재미, '스타벅스'는 커피 맛에서 기본을 다시 세웠다. '아마존'은 여기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다.

본(本),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100년 가는 기업들도 한결같이 종종 위기를 겪었다. 매출이 급감하기도 하고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그 위기 때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근본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코닝'은 유리 제조 기술에서 근본을 찾았고, '레고'는 놀이의 재미, '스타벅스'는 커피 맛에서 기본을 다시 세웠다. '아마존'은 여기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다. 아마존이 얻은 답은 바로 고객이었다. 아마존은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고, 지금껏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드 폰테스[Ad Fontes]'라는 라틴어가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무본[君子務本]이다.

력(力), 결정구를 가져라

힘이 없으면 끝이다. 숟가락을 들 힘이 없으면 제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소용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기업에겐 무엇이 힘일까? 어렵지 않다. 제품을 만드는 제조 기업은 제조력,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은 고객력이 힘이다. 그 핵심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목숨을 건다. 여기에 더해 꼭 필요한 것이 현금이다. 기업의 피에 해당한다.

2010년 《포천》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코닝'의 비결은 바로 제조력에 있었다. 그 제조력을 유지하기 위해 코닝은 심각한 적자를 볼 때에도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아마존'은 고객력에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임한다. 월마트의 시가 총액을 초과한 이 기업의 CEO가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전화에 응대할 정도다. 내가 경험한 글로벌 기업들은 또한 하나같이 현금 흐름에 사활을 걸었다. 현금이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 100년 가는 기업들은 달랐다. 측정 가능한 '재무 지표'를 개발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챙기고 있었다. 전 직원들이 부서에 상관없이 언제나 명심하고 지켰다.

결국 모든 기업은 그것이 제조력이든, 고객력이든, 현금 능력이든 '나만의 결정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윗의 돌팔매처럼!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야 한다. 기업도 개인도 똑같다. 나만의 결정구, 대체 불가능한 그 무엇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면 시쳇말로 언제 훅 갈지 아무도 모른다.

촉(觸),
마켓을 확실히 파악하라

기업은 시장과 고객에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시장과 고객에서 멀어지면 몰락을 피할 수 없다. '노키아'와 '코닥'은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다. 노키아와 코닥은 남들보다 먼저 각각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했지만,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알아채는 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하고 만 것이다. 촉이 무뎌진 조직의 최후는 결국 도산이었다.

촉이 살아 숨 쉬는 기업은 다른 결과를 얻었다. 시장의 변화를 파악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때에 내놓고 성장을 주도했다. 한 시장이 열리자 재빨리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응용 제품까지 그 플랫폼 위에 올려놓고 고객의 확장 반응을 유도했다. '아마존', '애플'은 여기에 능한 고수 중의 고수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국 기업의 관리자들이 시장과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다. 반면, 일본 기업인들은 해외 시장과 유리되고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파(破),
한계를 깨트려라

역설적이게도 100년 이상 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 파괴에 능했다. 파괴를 피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파괴했다. 즉, 한계를 깨고, 주력 사업이라도 과감히 버렸다. 시장과 고객 변화를 미리 읽는 촉이 있었고, 변화를 주도하는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천》 선정 500대 기업 중 가장 오래된 '듀폰'은 지난 200여 년 동안 회사의 주력 산업을 세 번이나 확 바꾸었다. 버리면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공 함정'이다. 가장 깨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성공에 빠져 과거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성공 함정, 한번 빠지면 누구든 끝이다. 성공하고 잘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인데,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공 함정에 빠져 사라질 것인가? 주도적으로 변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글 | 김현중 듀폰 코리아 이사, 코닝 미국 본사 전략 담당 임원, PPG 코리아, 디스플레이 글래스 얼라이언스 CEO 등을 지냈다. 제조 · 생산 관리 등의 공장 현장 업무부터 영업, 마케팅, 신규 비즈니스 개발, 전략 기획까지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고, 아시아 총괄 및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활약했다. 현재 통찰력(INSIGHT), 혁신(INNOVATION), 영감(INSPIRATION)을 모토로 내건 '김현중 3I 경영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집필, 강연, 코칭,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중국 푸단대학교 객좌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 《바운스 백, 공처럼 다시 튀어 오르는 사람들의 비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복(復), 복원력을 키워라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의 비결은 시련과 역경이 없다는 데 있지 않았다. 수많은 시련에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복원력이다. 망망대해를 가다 보면 폭풍우도, 태풍도, 암초도 만난다. 복원력이 없다면 배가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업도 매한가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의 복원력이다. 조직의 복원력은 결국 리더의 복원력이기 때문이다. 리더가 먼저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나야 조직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이 한결같이 리더의 복원력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패와 역경을 겪어도 다시 회복하여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되찾고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바운스 백[bounce back]'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최고의 CEO로 불리는 잭 웰치 'GE' 전 회장은 고위 임원을 선발할 때마다 '실패 경험과 바운스 백 경험이 있느냐'를 꼭 확인했다. 실패가 일상화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 번 실패한다고 쓰러진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도 버틸 수 없다. 반드시 공처럼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 올라야 한다. 100년 가는 기업은 실패와 바운스 백, 이를 반복하며 복원력을 키워왔다. 그게 그 기업의 생존과 성장 DNA에 박혀 있다. 당신의 기업과 리더는 어떠한가?

인(人), 리더십이 결정한다

경영은 사람이고, 결국은 리더십이다. 앞의 5가지 핵심 비결들도 제대로 된 리더가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생존과 성장의 주역은 바로 리더가 펼치는 리더십이다. 100년 기업 리더들을 들여다보니 3가지 면에서 리더십이 남달랐다. 솔선수범, 동고동락, 초심유지.

5가지 핵심 DNA를 다 갖추었는데도 기업이나 리더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리더십이 무너질 때였다. 리더십이 바로 서야 비로소 100년 이상 가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 시대 혁신 기업들과 100년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핵심 DNA와 리더십을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다. 거기에 100년 가는 생존과 성장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아무나 못하지만 100년 기업, 여러분 회사도 될 수 있다"라고.

"강과 바다가 넉넉히 모든 골짜기의 임금이 되는 것은 그것들 아래에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백성 위에 오르고자 할 때에 반드시 말로써 자기를 낮추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할 때에 반드시 몸을 뒤에 둔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백성 위에 오르지만 그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백성 앞에 서지만 그들이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온 세상이 그를 기꺼이 받들어 모시되 싫어하지 않거니와 다투지를 않으므로 세상이 그를 상대하여 다툴 자가 없다."

노자 <도덕경>

중국의 성인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네요.

"강과 바다가 수백 개 산골짜기 물줄기의 복종을 받는 이유는 그것들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란다면 그들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그들보다 앞서기를 바란다면 그들 뒤에 위치하라.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의 뒤에 있을지라도 그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하여 그들보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공자 <논어>

역시 성인은 성인끼리 통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은
여러 저서와 강연에서
'서도(書道) 관계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도書道 관계론

붓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감싸고,
한 자의 실수는 그 다음 자 또는 다음다음 자로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행의 결함은 다음 행의 배려로 고칩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한 폭의 서예작품은
실수와 보상과 결함과 사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며
실수와 결함을 감싸주는 다사로운 인정이
무르녹아 있습니다.

처음처럼

신영복
돌베개, 2016, p294

창립 40년, 성우하이텍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신나서 일하도록 만드는 리더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 발상,
동료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관용정신,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의 오프닝

김미라
페이퍼스토리
2013, p226

마지막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트일 疏 소
막힘없을 通 통

당신과 나의 시차가 다르더라도

조종사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세계 표준시인 그리니치Greenwich 표준시로 통신을 합니다. 시차가 없이 표준시로 소통한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과 항공 안전성을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니치 표준시처럼 시차 없는 소통, 시차 없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너무 일치된 것들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또 김빠진 맥주 같을지도 모르지요.

차이란 '다르다'가 아니라 '똑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되지만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똑같지 않음이 우리를 더 노력하게 할 것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기 전 그 지역의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처럼 마음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게 됩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사려 깊은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차이'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발전을 이루라고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역사의 **역사** **속으로**

어느덧 창립
40주년을 맞은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이 태동했던
1977년부터 4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어떤 희로애락이
모여 역사가 되었을까?

성우하이텍의 40년 역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만나보자.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
1997년 ~ 2006년
까지의 역사를 담았다.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그해엔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문득 궁금증이 일 때,
자녀가 물어볼 때
함께 꺼내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1997年

사건

- **성우하이텍 인도 JSL 합작회사 설립**
- **㈜성우시앤시 설립 (냉연코일가공센타, 現 코일센타)**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자금지원 협상 타결**
  - '외환위기', '환율상승', '부도', '실업', '노숙자'라는 우울한 단어 속에서도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봤던 해 (그러나 "'금모으기 운동'이 유효·적절 했던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 **북한 황장엽 비서, 남한으로 망명**
- **이태원 살인 사건 발생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배경)**
  - 최근 범인 존 패터슨이 미국에서 송환되어 대법원에서 20년 형이 확정됨(2017년 1월 25일)
- **대법원, 전두환에게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 운동, 비자금 사건 관련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에게 내란과 반란의 중요 임무 종사와 비자금 사건 관련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 원 선고**
  - 연말 사면 복권 :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가 사면 복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이유는 '대화합, 국민 대통합'이라고 한다.
- **울산광역시 탄생**
- **마지막 사형 집행 (12월 30일): 이후 20년간 사형집행이 없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해외

- **영국 스코틀랜드, 체세포 복제 양 돌리 탄생 발표**
  - 신의 영역이었던 생명 탄생을 인간의 손으로 가능함을 보인 최초의 사례
- **우주피스 공화국 건국(4월 1일)**
  - 1년에 하루만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동화 같은 국가
- **중국, 홍콩을 99년 만에 반환 받음**
- **영국 다이애나 前 왕세자비,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문화

-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
- **한국프로농구(KBL) 개막: SBS 스타즈 vs. 대우증권 제우스**
- **다마고치 열풍. 교육부는 전국의 15개 교육청에 초/중/고등학생들의 다마고치 지참 금지 공문 발송**
- **『주간 소년 점프』에서 만화 「원피스」 연재 시작(당최 끝나긴 할까?)**

1998年

사건

-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취임**
- **IMF 영향 지속**
  - 타결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 육성정책. 특히, IT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의 인터넷 인프라를 1년 만에 단기간 구축. 세계 최초 전국 인터넷 사용 가능 국가가 됨(역시 위기는 기회!). 그러나 무분별한 벤처기업 창업은 2000년대 초반 문제가 됨.
  - 500원 주화를 적게 제작하여 보급. 이 해 500원 주화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 취급
- **김훈 중위 사건 발생**
  - 대표적인 군 의문사. 이 사건의 처리에 회의감을 느낀 육사 동기 33명이 의무 복무 후 전역 선택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2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싣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방문. 이후 금강산 관광 시작**

해외

-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알려짐. 미국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됨. 이듬해 상원에서 부결.**

문화

- 일본문화개방의 해 (SBS는 <슬램덩크> 방영)
- 댄스댄스레볼루션(DDR) 첫 작품 발매
- 스타크래프트 발매
  - 'PC방', '프로게이머', 'e-스포츠'라는 생소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에 결정적 기여

1999年 ▼

사건

- 제1차 연평해전 발발
  - 남북 해상경계 로 인식되어 왔던 NLL을 분쟁화시키려고 한 북한의 도발
  - 한국 해군은 7명 부상, 북한은 어뢰정, 경비정 각 1척씩 침몰 및 경비정 3척 크게 파손되고 수십 명이 사망
-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서면역 구간 개통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 발생(23명 사망)
  - 씨랜드와 화성군 사이의 온갖 비리, 인솔교사들의 무책임으로 애꿎은 유치원생들이 사망한 사건.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공분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 탈옥수 신창원, 907일만의 검거. 얼룩무늬 티 열풍
- 서울지방경찰청, 마스코트 '포돌이'와 '포순이' 첫 선을 보임.

해외

- 코소보 전쟁 발발. 코소보 독립군과 유고 정부가 벌였던 전쟁으로 미국과 NATO 공군까지 참여하여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뻔함.
- 중국, 마카오를 반환 받음.

문화

-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 멸망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해
  -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예언서의 글귀. 예언서 자체가 후대에 오면서 가공된 것이 많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
- MBC 습격사건 발생: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PD수첩> 방영을 막고자 MBC 본사 주조정실을 점거
- Pump It Up, 오락실 출시: "웃기지 마라 마라 제발 좀~~♬"
- 포트리스2 출시. 대한민국 최초 1,000만 회원 돌파 게임. 지금 생각해보면 "왜?"라는 의문이 드는 게임.
- 일본영화 <러브레터> 국내 상영. 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오겡키데스카, 아타시와 겡키데스!)

2000年 ▼

사건

- 기술연구소(현 R&D센터) 독립건물 준공
- 상호변경: ㈜성우금속 ⋯› ㈜성우하이텍
- Y2K 공포에 떨며 새천년을 맞았지만… 그땐 왜 걱정했을까 자괴감이…
-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 발표
  -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 광복절에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한의 46개 언론사 사장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북한 방문함.
  -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 연쇄살인범 정두영 검거(부산, 9명 살인). 이후 희대의 살인마는 정두영을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 의약분업 실시: 일부 의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병원 휴업

해외

- 러시아, 잠수함 쿠르크스 함 침몰. 승조원 118명 전원 사망
- 호주 시드니 올림픽 개최. 남북한이 개·폐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

문화

- 진도에서 대전으로 7개월 만에 돌아온 진돗개 백구, 사망. 진도군에서는 2015년 2월에 "돈지 백구 테마센터" 개관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Pusan이 Busan으로~

2001年 ▼

사건

- 성우하이텍, 서창공장 준공 (경남 양산 소주공단)
- 8월 23일,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 종료
- 인천국제공항 개항: 한때 민영화 논란으로 시끌시끌~
- 국가인권위원회 발족
- 제7호 태창호 사건: 밀입국자 25명을 질식사시킨 사건 (영화 [해무] 모티브)

해외

- 미국 9·11테러 발생(2,996명 사망, 역대 사망자 수 1위 테러)
  -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잇따라 일으킴.
-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 폴란드의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와 같은 수상이 일본에서 나오는 날이 있을까?
- 대한민국 청년 이수현, 일본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취객을 구하고 별이 되다.
  -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을 남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은 일본 열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배경).

문화

- 거스 히딩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취임. 2001년은 '오대영'이라는 별명(조롱?)에서 이듬해 '구국의 명장 희동구'로!

2002年

사건

- **장영실상 수상(TWB 레이저 용접기술)**
- **성우과기(무석)유한공사 설립 (중국 우시)**
-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설립 (중국 베이징)**
- 미 육군 장갑차량에 의해 여중생 2명 사망
  - 연초 동계올림픽 편파판정 사건으로 반미 감정 고조 + 끔찍한 사진 무분별하게 유출
  - 고의성 여부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심화되었으나 단순 과실치사 사고로 사실상 마무리됨.
  - SOFA규정, 치외법권 등 미군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반 세기 만에 치열하게 고민하게 된 사건
- 제2연평해전 발발(영화 [연평해전] 배경)
  - 제1연평해전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북한의 계획적 침범에 대항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6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고 19명이 부상 당한 교전(북한군 13명 사망, 25명 부상)
-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 ~ 장산역 구간 개통
-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 발견

해외

- 유럽연합, 유로화 공식 사용
-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칭

문화

- 월드컵 개최국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쓴 해
  - 대한민국이 승리한 국가로는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지금 생각해도 ㅎㄷㄷ
  - 반 세기 만에 붉은색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최초의 시기!
- 가수 유승준, 병역면제 목적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로 입국금지 발효
- 미스코리아 실황중계를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에서 첫 방영
- 플레이스테이션2 국내 출시. PC방에 이어 플스방이 스멀스멀
- KBS 2TV <일요일은 즐거워 - MC대격돌>, 공포의 쿵쿵따 선풍적인 인기. 꿍스 꿍스~~♬

2003年

사건

- **부품소재 기술상 수상(Roll - Forming Bumper Beam 제조기술)**
-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취임
-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192명 사망, 151명 부상)
- 이라크 전투병 파병, 논란 끝에 확정
- 간첩누명 쓴 수지 김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짐.
- 태풍 <매미> 경남 강타(사망·실종 132명, 재산 피해 4조 7천여 억 원)

해외

- 이라크 전쟁 발발
  -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징계가 전쟁의 명분(후일 조작이라고 판명)
- 홍콩, 가수 겸 영화배우 장국영 자살

문화

- 이승엽, 아시아 홈런 신기록(56홈런) 달성(2013년 일본프로야구 블라디미르 발렌틴이 60홈런으로 경신)
- NBA 마이클 조던, 워싱턴 위저즈를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최종 은퇴

2004年

사건

- **국내 全 사업장 ISO/TS 16949 및 ISO 14000인증 획득(BSI인증원)**
- 대통령 탄핵 소추 ⋯› 17대 총선 후폭풍 (열린우리당 과반수(152석) 획득) ⋯› 헌법재판소 기각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 결정. "관습헌법"이라는 용어 첫 등장
- KTX 경부선 1차 개통(서울 ~ 동대구)
-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무장괴한 알 자라카위 집단에 피랍 후 피살됨.
- 연쇄살인자 유영철, 경찰에 체포 (영화 [추격자] 모티브)
  - 20명을 살인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애초에 21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1명은 정남규가 살해한 사건을 유영철이 자신의 범죄로 자백함. 드라마 〈터널〉에서 신재이(이유영 분)가 이 사례를 언급함)
  -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희대의 살인마(그러나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무책임함은 생각해 볼 문제)
-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규명법)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
- 최악의 병역비리 사건 발생(일명 '병풍'). 프로야구에서 시작되어 연예계까지 확산

해외

-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3,000여 명의 사상자 발생). 김정일 암살 시도설이 일파만파~
- 인도네시아, 최악의 쓰나미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 발생
- 중국, 고구려를 중국의 중원왕조 중에 하나라고 왜곡.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에서는 광개토대왕비를 중국의 고대유물이라고 왜곡하여 소개. 훔칠 것이 없어서 역사를⋯

문화

- 스타크래프트, 전설의 3연벙 발생
  - 스타리그 2004, 4강에서 임요환(테란)이 홍진호(저그)에게 쓴 희대의 전략
  - 홍진호 퓹^^ or 불쌍ㅜㅜ, 임요환 역시!! or 넘했어ㅠㅠ

2005年

사건

- **성우하이텍 s.r.o 설립 (체코 오스트라바)**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신드롬
- 청계천 복원 공사 완료. 청계천 상인 보상 차원으로 기획된 가든파이브 전설(?)은 진행 중
- 헌법재판소, 호주제 폐지 결정
- 530GP에서 김일병 사건 발생(8명 사망)
  - 북한군의 기습이라는 유가족의 주장이 있어 12년 만인 2017년 3월 25일에 재수사 결정
-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대저역 ~ 수영역 전 구간 개통
- 대한민국 가정용 전기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승압하는 사업을 32년 만에 완료. 집집마다 나뒹굴던 돼지코(?)가 점점 역사 속으로

해외

- 교토 의정서 발효. UN의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
-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강타. 카트리나 피해도 컸지만, 이를 둘러싼 미국 사회 전체의 재난 예방 및 대처에 미숙함을 드러낸 사건

문화

- 천년부경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공룡, 부경대학교 백인성 교수 팀이 발견), 세계 공룡 목록에 등재됨. 한국어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등재
- MBC <토요일>에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코너 시작. 이후 국민예능 <무한도전>으로 진화~
- 연예계 X-file 사건. 국내 최대 광고기획 회사인 '제일기획'에서 모델(연예인) DB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파일이 대중에게 노출됨.
- 인디밴드 카우치, MBC <음악캠프> 방송 중 전라(全裸) 노출(최악의 방송사고 1위 - 2위 MBC 습격사건, 3위 배철수 감전 사고, 4위 내 귀에 도청장치)
  - 〈음악캠프〉는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알리려는 취지로 인디밴드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 〈음악캠프〉는 폐지되고, 이후 음악방송에서 생방송은 사라지고 5~20분 내지 지연 방송함.
  - 워낙 쇼킹한 사건인 탓에 그 원인을 두고 각종 음모론이 유행함(유명 연예인 스캔들,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 , S社 X-file 사건 등 관심 전환용으로 돈을 받았다는 썰들이 암암리에…)

2006年

사건

- **성우하이텍 슬로바키아 s.r.o 설립 (슬로바키아 질리나)**
- **성우과기기차부건(염성)유한공사 설립 (중국 옌청)**
- **성우하이텍 서창공장 사무동 증축**
-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상 (제조대기업부문) 수상**
- 반기문 외교부 장관, UN사무총장에 선출
- 오천 원 신권 발행. 신권 발행일에 한국은행에서는 수집가들이 진을 침. 이후 신권이 발행될 때마다 과열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일정수의 일련번호가 적힌 신권을 보관
- '바다이야기', '인어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장이 전국에 우후죽순 발생
-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
- 연쇄살인범 정남규, 경찰에 체포
  -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 경기지역에서 13명 살인, 20명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마
  - 전문 프로파일러들도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한 국내 최악 쾌락 목적 살인범
- 서해대교, 29중 연쇄 추돌 사고 발생(12명 사망, 54명 부상).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그리고 심각한 안개가 빚은 첫 번째 대형 추돌 사고. 두 번째는 2015년도에…
- 제주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는 특별자치도로 출범(제주특별자치도)

해외

- 북한, 풍계리 실험장에서 핵 실험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1차 핵실험)
- 위키리크스 설립
  - 익명의 정보 제공자 또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
  - 2010년 전후부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가 종종 근거가 됨.

문화

- 언론에서 최초로 '된장녀' 관련 기사 언급 (기사 제목 "스타벅스 가면 된장녀")
  - 비슷한 시기에 김옥빈의 할인카드 발언이 이슈화됨. 이후 '간장녀', '김치녀', '고추장남' 등장
  - 청년 실업난, 양극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빚은 씁쓸한 사회현상
- 정진석 대주교, 대한민국 2대 추기경으로 서임
- 독일 월드컵 개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원정 월드컵 첫 승(對 토고, 2:1로 승리)

- 명왕성, 태양계의 행성에서 제외. 수금지화목토천해…
- 부산, 시내버스 무료환승할인제 시행

기발하고, 재치 넘치며, 때로 감동적인 직원들의 축하 메시지~ 만나 볼까?

성우 40주년 축하 메시지를 담아~

금형설계팀 조승덕 사원

성 우하이텍이 4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 리 성우가족들이 만들어 낸 값진 생일입니다.
사 행하는 가정을 만들고, 만들어 갈 멋진 성우에서
십 년 더~ 십십 년 더~ 100년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새로운 것에 대해
년 (연)구하고 개발하는 멋진 성우인이 되도록 합시다!

품질경영팀 최진원 사원

성 우하이텍이 벌써 창립 40주년이라구요?
우 와~ 제로 한편인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군요^^;
사 행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전 매일 출근할거예요~ 그러면
십 년 더 ~ 아니 백주년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년 (연)수가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성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1팀 전현배 사원

성 우하이텍의 성장과 함께 저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 리 회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준 회사입니다.(취업과 결혼)
사 랑합니다 성우하이텍
십 년 이상 년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년 (연)금복주는 당첨되기 전까지 계속 다니겠습니다^^

아산물류반 박종필 조장

성 우하이텍이 벌써 40돌이라구요?
우 ~와! 19구구년~2이구년이니 맞네!
사 십 년이면 불혹이니 이제 완전한 어른이다, 그죠?
십 년이 네 번 강산이 네 번 바뀔 동안
년 (연)연히 푸른 신록처럼 사람도 회사도
더불어 아름답고 든든하게 성장했구나!~^^

금형설계팀 이임범 대리

성 우 40돌 축하해요!
우 리 성우 직원 모두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사 랑과 관심을
십 시일만 모아서
년 (연)일 승승장구 해나가는 성우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우 forever!

금형설계팀 최성원 사원

성 우하이텍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 리 성우인들의 값진 노력의 결실이네요.
사 보게 제 글도 실어준답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사십 년이라니~
년 (연)연할 것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성우인이 됩시다.

아산물류반 변진수 기장

성 우하이텍은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 리 회사는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사 십 년의 노하우와 기술을
십 수 년간 개발하고 이어가며 앞으로도
년 (연)수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발전할 기반이 있는 자랑스러운 회사입니다.

성우인들이 생각하는 성우하이텍은 어떤 모습일까?

성우인들 마음속의 '성우하이텍' 엿보기

삶의 동반자

인간의 5가지 충족 욕구(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는 회사가 추구하는 5가지 목적(수익창출, 생존, 산업생태계, 평판, 회사의 가치)과 일맥상통. 성우하이텍의 존재 이유가 곧 성우 직원들의 행복을 위함이 아닐까. 오늘도 힘차게!

금형설계팀 **윤용식 대리**

그라시아스
(스페인어: 감사합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
동료들에게 항상 그라시아스!

융합설계팀 **이호준 연구원**

또 다른 시작!

성우하이텍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후 부산에서 제2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빠로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예쁜 딸도 태어났다.

금형설계팀 **신정호 대리**

디딤돌

결혼, 2세, 미래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공법혁신팀 **김영호 사원**

카톡

카톡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울리는겨~

금형설계팀 **김성재 과장**

Together

내 삶과 함께 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내 삶은 성우하이텍과 함께!

개발2팀 **정창영 차장**

여행

본가가 윗지방이라 휴가철이 되면 마음먹고 시간 내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야 했는데, 회사 덕분에 매일 여행하는 기분이다.

선행기술팀 **유병호 연구원**

오른팔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든든한 직장이니까!

금형설계팀 **오태경 과장**

인생

내 인생의 큰 반환점이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연관된다.
성우하이텍에서 희로애락의 모든 것을 느낀다.

금형설계팀 **추진헌 과장**

내비게이션

내 꿈을 향한 길을 안내해 준다.

금형설계팀 **천성보 차장**

물음표

매순간 의문을 던지며
나를 자극하고 성장하게 한다.

금형설계팀 **구배성 사원**

사회 첫걸음

첫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
난 성우하이텍이 첫 직장이다.

금형설계팀 **정현기 사원**

부모

1. 장가를 보내주었다.
2. 나에게 보물 2개를 주었다.
   (머스마 둘)
3.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4. 부모를 봉양하는 마음으로
   성우하이텍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지사조립계 **최성욱 기장**

나에게 성우하이텍은 ☐ 다

부산 밀면의 시작

내호냉면

창업주는 함흥의 내호리에서 1919년 동춘면옥이라는 냉면집을 했다.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구호물자로 나온 밀가루로 면을 만든 것이 부산 밀면의 시작이다.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도 소개되며 여행객들이 꼭 들르는 맛집이 되었다. 주문을 하면 주전자에 육수가 먼저 나오는데 그 맛이 담백하고 시원하다. 매일 한우 사골과 아롱사태를 2~3시간 정도 우려낸다. 밀면에는 양념장이 듬뿍 올려지는데, 과한 단맛이 없다. 가게 벽면에 가위로 끊지 말고 먹으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질기지 않은 면은 그대로 먹는 것이 확실히 매력적이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무채와 돼지고기 고명을 면에 말아 한 젓가락에 입에 넣고 국물까지 호로록 마시면 정점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함께 먹는 찐만두는 호불호 없이 '엄지 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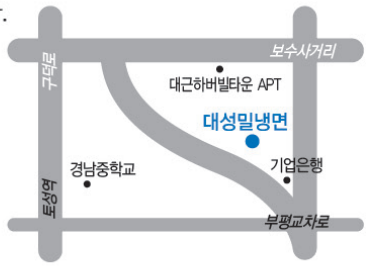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번영로 26번길 17 T. 051) 646-6195

약을 달이는 정성

대성밀냉면

떨어지는 접근성과 허름한 외관은 맛집의 고유성인가보다. 가게에 들어서면 육수 냄새가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일본에 밀면 조리법을 전수했다는 기념사진이 눈에 띈다. 역시 범상치 않다.
진한 육수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고기 고명을 넣고 밥을 말아도 될 만큼 진한 사골국이 아닌가! 한우로 끓이는 사골에는 매실액, 백련초, 삼채뿌리, 과일, 양파 등이 들어갔다. 약을 달이는 정성과 비견할 만하다. 고명으로 올린 삶은 계란도 특별하다 싶었더니 6시간을 쪘단다. 국물을 들이켜다가 입에 걸리는 게 있어 뱉어보니 이게 웬 참사? 비닐조각 같은 것이 나온다. 알고 보니 갈아 넣은 백련초다. 오해 말자. '열무비빔밀면'은 이 집만의 계절 별미. 아삭한 열무가 입맛을 돋우는 인기 메뉴다.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44번길 6
T. 051) 244-9658



더위야, 어서 온나~ 밀면아, 반갑데이!

놓칠 수 없는 여름 별미! 최고의 밀면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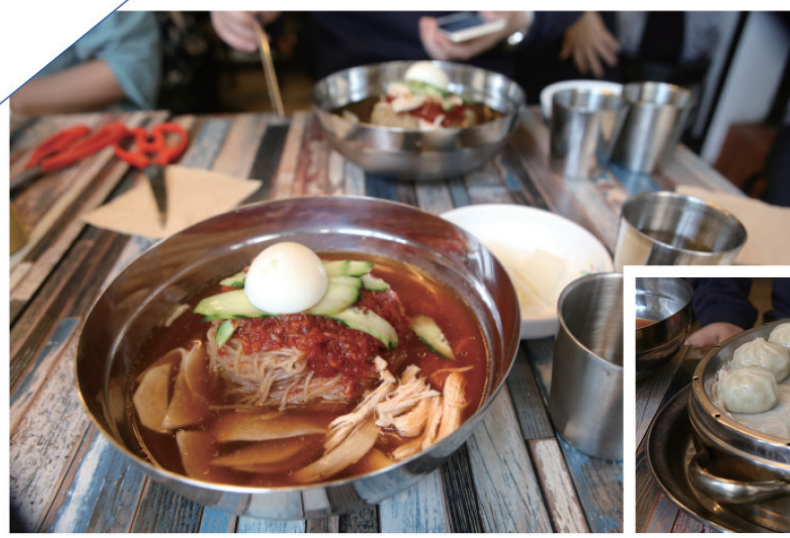
무더위가 찾아오면 생각나는 부산의 대표 음식 밀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입맛을 잃어갈 때 쫀쫀한 면발과 매콤새콤 시원한 육수가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진다.
무더운 내일이 없다면 여름 최고의 별미, 밀면이 이토록 그리울 수 있을까?
특별한 맛에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맛집을 소개한다.

맛에 감각을 더하다

용호부대밀면

밀면을 주문하면 만두 1개가 세트메뉴처럼 제공되어 혼밥족이나 양이 적은 커플은 만두를 시키지 않아도 좋다. 주인장의 감각적 서비스정신이 돋보인다. 종류도 감자만두, 갈비만두, 왕손만두 세 가지나 되니 맛보기 만두가 모자라다면 입맛대로 골라보길. 약콩을 넣어 면을 뽑은 것이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 주인장 어머니의 아이디어다. 육수 역시 진국이고, 고명으로 닭고기를 써서 식감이 차별된다. 과일을 아끼지 않고 쓴 비빔밀면의 양념장이 새콤하고 상큼하다. 젊은 층에 맞춘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들고 나는 손님을 보고 있자니 노부부와 가족단위의 손님들도 많다. 오래된 맛집의 분위기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감각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다. 다만 가게 앞은 좁은 도로라 기다리는 것도 수고가 필요하다. 주인장은 확장을 고민 중이다.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97번길 6 T. 051) 611-1231



3대 밀면, 같은 듯 다른 듯

1. 100년을 향해가는 전통 (내호냉면)
2. 진한 육수와 열무비빔밀면 (대성밀냉면)
3. 만두가 제공되는 주인장의 감각적 서비스와 약콩면 (용호부대밀면)

어제는 더웠고 오늘은 더욱 덥다. 그러나 내일은 밀면이다. – 어느 성우인 –

성우하이텍과 함께

감성 충전할 준비, 되었나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 담쟁이잎 하나는 / 담쟁이잎 수천 개를 이끌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평산교회 1층의 커피숍에서 삼삼오오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시 낭송회가 한창이다. '시와의 산책 시 낭송회' 회원의 낮은 목소리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에 생명을 더한다.

남경희 시인은 지난 2015년부터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 낭송회를 열어 문화적 목마름을 해갈해주고 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시 낭송회가 20회째를 맞이한 이날. 이 뜻깊은 자리에 성우하이텍 직원들도 함께했다.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성우하이텍 댄스팀 어반(Urban)의 에너지 넘치는 오프닝 공연에 여느 시 낭송회와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어반 팀의 공연 후 이어진 낭송회는 박형진 시인의 〈사랑〉을 시작으로 10여 편의 시 낭송과 소프라노 공연, 색소폰 연주, 기타 연주 등 많은 볼거리로 채워졌다. 자신이 마실 커피 한 잔 값만 내면, 시뿐만 아니라 다양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다. 낭송회에서 펼쳐지는 소프라노 공연 등은 순수 재능기부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크다.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 덕분에 20회를 맞이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성우하이텍 직원분들이 공연을 해주신 덕분에 행사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시 낭송회를 통해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봄은 어떨지.

시와 함께하는 감성 충전의 기회,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_*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7시경
*어디서_*
비마프커피숍 (경남 양산시 평산 중앙로 57)

LET'S PLAY THE GAME

START

1 오른쪽 사람이 손목에 시계 그려주기

2 Lucky! 9번으로 Go!

3 걸린 사람 등에 인디안 밥!

4 안구 운동하자! 눈동자로 이름 쓰기

5 주사위 한 번 더 던지기

6 오른쪽 사람을 등에 태우고 팔굽혀펴기 3회 실시

7 타임머신 탑승! 15번으로 이동

8 1+1은 귀요미~ 애교 보여주기

9 앞 사람을 보며 머리 위로 하트!

10 빽~! 과속한 당신, 1회 쉬시지 말입니다.

11 오른쪽 사람에게 어깨 안마 10회 해주기

12 8번으로 Go Back!

13 다음 순서가 올 때까지 스마일~

14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보내기

15 항~ 속았지? 출발지로 돌아가기

16 두 칸 후퇴

17 휴가 간다! 열심히 달려온 당신, 1회 휴식

18 이차 타임 20초 – '뒤풀 없기' 필수!

19 찰칵~ '외모 돌아주기' 촬영

20 주사위 한 번 더 던지기

21 오른쪽 사람 장점 1가지 말하기

22 다음 순서가 올 때까지 왼쪽 사람에게 안마 받기

23 왼쪽 사람이 정해준 노래 1소절 부르기

24 앞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25 16번으로 Go Back!

26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 있기

27 세 칸 후퇴

28 왼쪽 사람 업고 3바퀴 돌기

29 성대모사 1회

30 알파벳 거꾸로 외우기! 실패할 경우 23번으로 후퇴

FINISH

게임방법은 뒷면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팀원, 반원들과 함께
게임 한 판 해보자.
삼삼오오 모여
게임을 즐기다보면
팀워크 UP!
소통지수 UP!

어서와
이런 게임은
처음이지?

Game Rule

1_ 각자 말을 준비한다.
- 펜뚜껑 , 지우개 같은 소품을 활용하자.

2_ 스마트폰 주사위 앱을 다운받는다.

3_ 주사위의 숫자만큼 말을 이동한다.

4_ 칸에 적힌 미션을 완료해야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

5_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꼴찌다.

6_ 그러나 꼴찌가 커피까지 사면 짠~하니,
1등이 함께 게임한 동료들에게 커피를 쏜다!

7_ 해피엔딩

두근두근 설렘의 순간
성우인으로 첫발, 신입사원들

"낯익은 얼굴을
찾아보아요~"

1980년대 성우금속 신입사원

2010년대 성우하이텍 신입사원

"사랑합니다,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40주년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수고했어요.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SUNGWOO HITECH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R&D Center : 18-2, Sojugongdan 6-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Stamping Mould Factory : 30, Sojugongdan 7-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Jeonggwan Factory : 2-9, Nonggong-gil, Jeonggwan-eup, Gijang-gun, Busan, Korea
Coi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Jisa Factory : 31, Gwahaksandan 1-ro, 60beon-gil, Gangseo-gu, Busan, Korea